

대형 화재에도 매수 문의 잠잠, 호가도 하락세

GTX 노선 따라가보니

창동역

2021년 말 이후 집값 계속 떨어져 서울아레나 공사 중단·재개 미정

인근 단지 정밀안전진단 신청 중 소형 평수 높은 분담금 예상 재건축 사업 진행 난항 겪을 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발표에도 창동 지역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경기 평택이나 김포 등 일부 부동산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와 대조적이다.”

최근 찾아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자리 잡은 ‘동아정솔’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울아레나의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재개가 힘들 것이라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며 “지난 2021년 말 최고가격을 찍은 이후 현재 절반가량 하락한 가격에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아정솔은 지난 1997년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창동의 대장주로 불리는 단지는 18개동, 지상 최고 24층, 전용면적 59~134㎡, 총 1981세대다.

동아정솔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 부지에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



공사가 중단된 '서울아레나' 현장.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자리 잡은 '동아정솔'.

/김대환 기자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3120억원 규모며, 민간투자자로 진행된다.

서울아레나는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개월 만에 카카오의 요청으로 착공식이 연기되며 공사는 중단됐다. 카카오가 오는 2027년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서울시에 상당한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C노선, 복합환승센터 등 화재에도 호가를 올리거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경우 GTX-

C노선으로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GTX-C노선을 기존 양주 덕정~수원 노선을 연장해 상당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삼성역 30분, 수원~삼성역 27분으로 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 된다. 특히, 창동역~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단축돼 도봉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가 나왔다”면서 “정밀안전

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중 소형 평수의 높은 분담금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주(-0.02%)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1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도봉구(-0.05%→-0.06%)는 쌍문·도봉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정솔’은 지난 2월 전용면적 84㎡가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8억8000만원) 대비 4000만원 떨어졌다. ‘동아그린’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59㎡가 5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2000만원 떨어졌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 ‘장기U’ 특허 획득

삼성화재가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다.

◆ 머신러닝 기반 인수 가능 최적 담보 찾기

삼성화재는 자사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가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장기U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고려해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담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다.

장기U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 이력 이 있더라도 AI를 통해 자동 심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 이력과 무관하게 빠른 심사 과정을 거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우울증 등 산모 위한 MY FAM 알파맘 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여성을 위한 보험을 선보였다.

◆ 산후우울증 최초 1회 30만원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산후우울증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맘’을 위한 ‘MY FAM 알파맘 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산후우울증, 관절통 등 출산 후 산모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상해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을 출시한 것은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의로부터 산후우울증 진단과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엔 최초 1회 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VDT증후군(누적의상성 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할 때 보험계약일로부터 수술 시점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50만원, 1년 이상일 경우엔 100만원(수술 1회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푸본현대생명

연금 더 오래 받는 MAX UP 연금보험

푸본현대생명이 새로운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 금리 하락 시 최저보증이율 적용

푸본현대생명은 연금개시 후 종신으로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MAX UP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MAX UP 연금보험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연금액강화형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강화 보너스’가 적립돼 일반연금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강화 보너스는 유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다. 금리 인하 시에도 확정된 보너스금액을 제공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KB손보, 양성평등 조직문화 내재화 나서

‘제2회 KB WE Story 컨퍼런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진행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제2회 KB WE Story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컨퍼런스 행사는 올해로 116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여성 직원의 커리어 성장과 ESG관점 성별 다양성 이해 기반 양성평등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여성의 커리어 성장과 네트워킹을 위한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1부 명사 특강, 2부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3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KB 로즈 어워드(Rose Award) 시상식과 KB WISH 멘토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KB Rose Award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Rose(장미)’를 명칭으로 사용했다. KB손해보험 전 임직원이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적극 기여한 직원을 각자 추천한 뒤 투표를 통해 남·여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남자 수상자는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고 몰입양면으로 주변 동료들을 지원하는 직원으로 김한용 장기부상보상센터장이 선정됐다. 여자 수상자는 꾸준한 성실함으로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후배 육성에 노력하는 직원으로 김미영 자동차업무파트대리가 선정됐다.

또한 여성 직원의 경력개발, 리더역량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KB WISH 멘토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약 4개월간 멘토와 멘티 각 20명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의 관습을 과감히 제거하고 KB손해보험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해 준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적극 기여한 직원으로 선정돼 ‘KB 로즈 어워드(Rose Award)’를 수상한 김한용 센터장(왼쪽 첫번째)과 김미영 대리(왼쪽 세번째),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DL건설, 전 현장 품질강화 캠페인

DL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High Quality Festival)’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 피치피에프이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품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DL건설

모바일현금카드 ATM 이용 21배 증가

올해 일 평균 536건 이용

현금카드 없이 모바일로 ATM에서 입출금 할 수 있는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현금카드 ATM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올해 일평균 536건으로 개시전(2023.1~11월)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모바일 현금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서 비(非)안드로이드폰으로 확대하고, QR코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QR코드 방식은 은행 ATM에서 모바일현금카드 선택 및 QR코드 생성을 누른 뒤, 본인의 휴대폰에서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열어 ATM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단, QR코드 방식은 이용전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은행계좌와 연계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